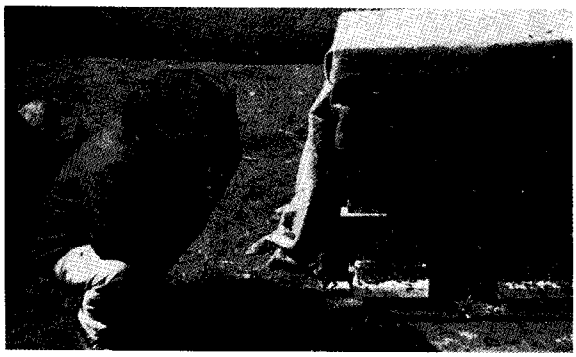
농림부 양봉담당 양봉사육현장 체험

문원탁 주무관 농가의 어려움 몸으로 실감
양봉시설 현대화 지원 필요성 느꼈다고 밝혀



인제 김정수 분회장 봉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양봉담당 문원탁 주무관은 지난 6월 10~12일(3일간)까지 강원인제와 양구관내 양봉장에서 양봉사양관리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체험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18일 장관주재 29개 품목 실무자 간담회에서 "품목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미쳐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문원탁 주무관은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과 이상철 연구소장과 함께 고정양봉과 이동양봉을 경험하면서 양봉농가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무밀기에 설탕 사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했다. 또한 이동양봉의 고충을 몸소 느끼며 양봉농가의 시설 현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문원탁 주무관은 "모든 양봉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대화 시설을 하고 고정양봉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오늘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양봉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양봉

좌측부터: 농림부 문원탁 주무관,
김정수 인제군분회장, 배경수 양봉협회장